

'정율성 역사공원' 논쟁...정부·광주시 대립 계속

국립 "정율성은 공산 침략 부역자" 공세 수위 높여...윤 대통령까지 가세 광주시당, 역사학자·시민 공청회 제안...구청장협 "최초 취지따라 조성해야"

광주시가 추진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해 여론과 보수단체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광주시당과 광주지역 구청장협의회는 절 지난 이념 공세라는 입장이다.

◇여권·보수단체 공세 수위 높여=국민의힘은 26일 광주 출신 중국 음악가 정율성을 '공산 침략 부역자'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율성이라는 인물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군부 관련 활동을 했다는 점은 누가 뭐라 해도 사라지지 않는 사실"이라면서 "국민 세금 48억원을 들여 정율성 기념공원을 짓는 것은 독립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켜온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려 했던 문재인

정권, 침략의 부역자들과 '우정의 정치'를 하자는 강 시장과 입장이 같은 것이냐"며 "이재명 대표 재판 대응과 각종 괴담 양상에 비하겠지만 민주당은 정율성 우상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가보훈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정율성을 국가유공자로 추서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공적심사 과정에서 활동 내용의 독립운동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고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광주는 1929년 대규모 학생독립운동이 시작된 곳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목숨까지 바친 민주화의 성지"라며 "어떻게 국립 5·18 민주묘지와 극렬 공산주의자 정율성의 기념공원이 함께 자리할 수 있는가"라

고 비판했다. 이어 "정율성의 실체를 광주시민과 국민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주시가 역사학자,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에서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 공원을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회통합과 관용에 부합하는 듯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연대와 통합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까지 가세해 규탄대회 등을 열며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지부는 27일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 일대에서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을 반대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문군경유족회 등 7개 보훈단체로 구성된 광주호국보훈 안보단체연합회와

대한민국엄마대봉사단(엄마부대)회원 100여명도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을 비롯해 광주시가 추진중인 정율성상에 대한 모든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광주시장·구청장협의회, "절지난 이념 공세"로 반박=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집중포화를 이념 공세로 규정하고 '광주정신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냉전은 이미 30년 전에 끝났는데 철 지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며 "언제나 그렇듯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하루 휴가를 내고 지리산을 찾은 강 시장은 일출을 바라보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한때 이곳에서 펼쳐졌던 이념의 깃발은 사라졌고, 지리산은 여전히 아름다워 사람의 발걸음 끊이지 않는다"면서 "지리산은 우리에게 사랑을 잊은 이념의 덧없음을 가르쳐준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최근 논란이 촉발된 이후 세 번째 SNS 게시물을 올리고, 정부와 여당의 파상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 시장은 지난 22일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두 가지 색깔, '적과 나'로만 보인다"고 반박했으며, 23일에는 "논란을 멈추고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고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도 지난 25일 성명을 내 "정율성 역사공원이 최초 취지와 목적에 따라 순조롭게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정율성 선생은 항일 운동을 고수하고 격려하는 다양한 작곡을 통해 항일 전선에 참여했다"며 "그의 일가 대부분도 항일 독립 운동에 매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의 시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그의 생애 중 한 면만을 부각해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남 화순, 전북 전주 등 타지역에서도 역사와 문화 자원에서 정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제조기업 상품, 라스베이저스 소비재 박람회서 인기몰이

리뷰·화장품 등 18만달러 수출 협약

전남도가 북미 최대 규모 '라스베이저스 소비재 박람회'에서 천연염색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선보여 18만 달러 상당의 수출 업무협약 등을 하고, 미국을 포함한 7개 국가로부터 수출 문의를 받았다.

전남도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분부는 전남 6개 기업과 함께 지난 23일까지 4일간 라스베이저스 소비재 박람회에 참가했다. 박람회에서 5개 기업은 7개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16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당과 18만 달러의 수출계약 및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라스베이저스 소비재 박람회는 선물 및 인테리어, 장난감, 보석, 패션 액세서리, 뷰티, 편의점 등 다양한 소비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북미 최대 규모 종합 전시회다. 올해는 한국을 포함한 30여개 국가 1800개 이상 공급업체가 100만 개 이상 제품을 전시해 다양한 비즈니스기회를 창출했다.

전남에서는 천연 염색, 화장품, 비데 등 6개 기업 제품이 전시됐고,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장성 (주)백터네이트코리아는 1만9000



최근 라스베이저스에서 열린 '소비재 박람회'에 참가한 전남지역 기업의 직원들이 미국인에게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했다. 미국 시장에 적합한 비데를 1만5000달러, 여드름 상처 패치 4000달러 등이다.

보성 사회적기업인 (사)한국천연염색 숨은 천연염색 의류와 스카프 5000달러 상당의 수출계약과

10만5000달러 상당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주)인코넬바이오테크놀로지(주)는 여드름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마스크팩과 석류 플라센 젤리틱스 등을 출품해 5만 달러 상당의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전 7시까지 무료" 광주시의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광주시의회가 출근 시간대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광주시의회는 김용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분산하기 위해 평일 새벽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유료도로 이용 차량의 통행료를 10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친환경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유효 기간도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해당 유료도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제2순환도로 3개 구간(소태·송암·유덕 돌계이트)으로, 각각 1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교통 분산과 시민 교통 복지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원일 기자 cki@

광주시 '이달·올해의 공무원' 제도 폐지

도입 5년만...과열경쟁에 따른 내부 갈등 유발 사유

광주시가 우수 공무원 발굴·격려를 위해 도입한 '이달·올해의 공무원' 제도가 5년 만에 폐지됐다.

공직 부패방지과 상급자 대상 로비 등 공정성 논란에다 과열경쟁으로 인한 내부 갈등만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자로 '광주시 이달·올해의 공무원상 운영 규정'을 폐지했다. 폐지 사유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내부 갈등 유발이다.

광주시는 2018년 8월부터 '혁신', '소통', '청렴' 등 시정가치 구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이달·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총 78명의 공무원이 선정됐다. 매월 1명 또는 2명씩 선발해 왔으며, 최근 두 달간은 적격자가 없어 선정하지 않았다. 마지막 선정자는 지난 5월 이달의 공무원에 이름을 올린 강은숙 복지정책과 팀장과 김경명 주무관이다.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상장, 상패는 물론 시상금 100만원과 근무성적 실적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는다.

광주시는 그동안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철저한 내부 검증 작업을 거쳤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조직 내부에선 실적 부풀리기와 국·과장급 간부들의 '제 사람 챙기기' 등이 도를 넘어섰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또 이달의 공무원 신청자 중 일부는 직원들 사이에 평판이 좋지 못한 사례도 있었으며, 다른 동료의 실적이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챙기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실제 공직 조사를 본인이 스스로 하는 셀프 조사를 비롯한 하급자가 상급자의 공적을 심사하는 사례, 같은 업무와 공적으로 기간만 다르게 제출한 공무원이 선정된 사례 등도 있었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그동안 선정된 이달의 공무원 중 우수한 직원도 많았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수상을 하느냐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면서 "일 잘하는 직원이 많아 폐지를 결정했다"며 "시정 내부적으로 시정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격려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달·올해의 공무원 선정 업무를 맡아 온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과열 경쟁에 따른 내부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중박 혜택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많아 폐지를 결정했다"며 "시정 내부적으로 시정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격려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신청서 접수 시행령 제4조의2)

- 발전사업 개요
 - 발전소명: (사)지도상생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소 사업
 - 발전소 위치: (사)지도상생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소 사업
 - 발전소 면적: 28필지(내역: 1698-10, 1698-8, 1698-9, 1699-11, 1699-12, 1699-14, 1699-16, 1699-18, 1699-2, 1699-4, 1699-6, 1699-9, 1700, 1700-11, 1700-14, 1700-18, 1700-19, 1700-2, 1700-23, 1700-7, 1700-9, 1701-4/정경리 1614, 1614-1, 1614-6, 1614-7)
 - 발전소 면적: 418.460㎡
 - 공고기간: 2023.08.24~2023.08.31(8일)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소 면적: 418.460㎡
 - 사업시행 예정일: 2023년 08월
 - 사업운영기간: 2026.08.01~2046.08.31(20년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사)지도상생태양광발전 대표이사 홍연준
-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3.08.24~2023.08.31(8일)
 - 의견제출방법: 전화: 02-6253-8900 팩스: 02-6253-7777 E-Mail: help@scaleenergy.co.kr

법인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2차)

당 법인은 2023년 6월 26일 임시 이사회에서 2023년 7월 1일자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7월 5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당 법인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상생발전재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65 (장덕동)
청산인 최 대 범
(062-960-2671)

해산 및 채권제출 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7월 24일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해산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본은 본 공고 익일부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 신고가 없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8월 28일

해남남양주제철주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39 (오산동)
위 청산인 정 민 호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성학(70812-XXXXXX)
- 최후주소: 광주 남구 진다리로39번길 12, 404호(백운동)

피상속인 망 김성학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년 8월 23일 1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를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8월 28일

- 상속인: 김용태(970125-XXXXXX)
광주 광산구 장신로191번길 5-2, 206호(장덕동)
- 신고기간: 2023. 8. 28. ~ 2023. 11. 7.
- 채권신고처: 상속인 김용태의 주소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07월 21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07월 21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본은 이 공고 게재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태오물산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2번로 125(하남동)
청산인 오 영 호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시현(800215-XXXXXX)
- 최후주소: 광주 서구 월드컵4로 27, 117동 2404호 (화정동, 태산명주센터빌딩)

피상속인 망 김시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년 8월 2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기를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8월 28일

- 상속인: 1. 김지선(830209-XXXXXX)
2. 김연경(171220-XXXXXX)
광주 동구 계림로30번길 15, 209동 1601호(계림동, 푸른꿈두산타워)
- 상속인 2미정(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장관자모 김지선
- 신고기간: 2023. 8. 28. ~ 2023. 11. 7.
- 채권신고소: 상속인 1.김지선의 주소

분할합병공고

(주인제출 및 채권자의 재출공고)

2023년 08월 27일 주식회사 서경전자(이하"갑")과 영진이앤지 주식회사(이하 "을")는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합병 제530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는 회사분할절차에 따라 "갑"의 재산(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 1개월 이내에 관제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입니다.

2023년 8월 28일

- "갑" 주식회사 서경전자 (200111-0367354)
광주광역시 서구 동구로264번길28 (급남동5가)
대표이사 박 현 우
- "을" 영진이앤지 주식회사 (134611-0095807)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내포로 2478
대표이사 이 중 배, 이 중 환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先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닝

光州日報

북구	• 동 광 266-1920 • 오 치 266-7601	• 문 흥 266-1960 • 용 봉 433-1503	• 북광주 525-3761 • 우 산 433-1503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 중 월 671-7276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동 일 603-0311	• 상 부 372-2352 • 화 정 369-1625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지국안내